

사회

학원버스 옷끼어 어린이 중상 후송 구급차 마저 충돌 사고

광주 일곡동 7세 남아 위독 ... 인술교사도 없어

학원 승합차 운전자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은 7세 남아 어린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S아파트 앞길에서 Y학원에 다니던 J(7·광주 모 초교 1년)군이 Y학원 스타렉스 승합차(운전자 고모씨·56)에서 내리던 중 차량 문 틈에 걸려 가던 차로 그대로 끌려갔다.

승합차에 매달려 35m를 끌려간 J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광주 I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대학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당했다.

J군을 태운 병원 구급차(운전자 김모·27)는 광주시 북구 일곡동 H마트 앞 길에서 정체가 심해지자 중앙선을 넘어섰으며, 때마침 사고지점에서 불법 U턴하던 김모(26)씨의 썬타페 승용차와 충돌했다.

J군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승합차를 탔으며, 차 안에는

학원생 5명이 있었지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할 인술교사는 없었다.

12일 오후 7시 현재 J군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군의 부상이 승합차에 끌려가며 커진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승합차 운전자 고씨와 병원 구급차 운전자 김씨, 산타페 운전자 김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안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주로 태우고 다니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통학용 승합차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운행할 수 있는데다 운전자와 인술교사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 어린이집이 1천116곳에 이르며 대부분 승합차로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또 대다수의 유치원과 학원 등에서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원 등은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통학용 차량 안전을 위한 구조변경에 소홀하고 인술교사 확보에도 소극적이어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만 14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46건(사망 3명, 부상 902명)이다. 2008년도에는 746건(사망 3명, 부상 940명)이 발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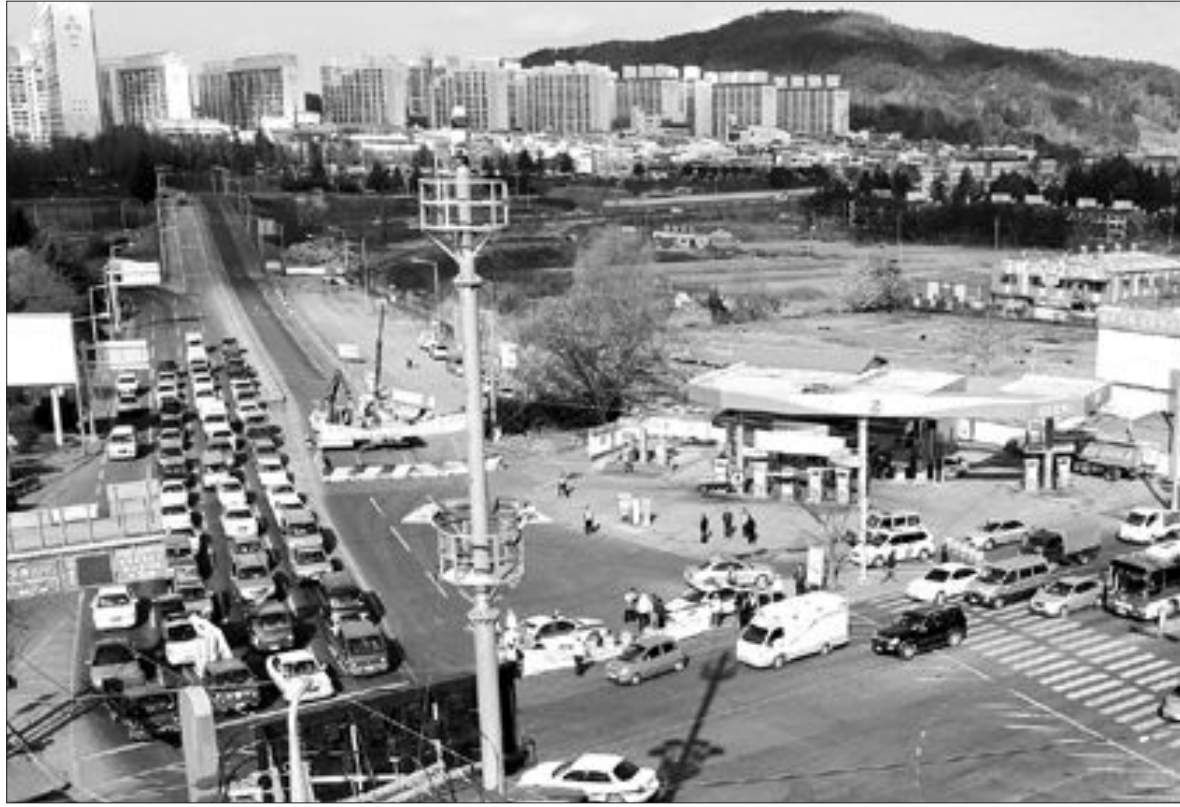
시내버스·승합차 충돌

승객 등 9명 중경상

11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가구의 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운전학원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양모(37)씨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돌아가세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서울, 대전방향 진입로)이 동광주~담양 고서 구간 확장공사로 인해 12일 오전 폐쇄됐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 일대에서 큰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그동안 동광주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했던 차량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문흥 나들목을 이용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동광주나들목 폐쇄 교통대란

홍보·우회로 안내 부족 운전자들 ‘우왕좌왕’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 진입로가 12일부터 폐쇄된 가운데 운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우회로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동광주~담양 고서 구간 확장공사’로 인해 동광주 나들목 서울·대전방향 진출로가 이날 폐쇄됐다. 기존 동광주 나들목 진입로를 이용, 호남고속도로 서울·대전 방향으로 갔던 운전자들은 동문로 담양 방면(국도 29호선) 도동고개 삼거리에

서 문흥 나들목으로 진입한 뒤 서울·대전 방향으로 가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동광주 나들목 진입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퇴근길 차량이 겹치면서 이날 한 때 일대에서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다.

체증의 여파는 북구 문화 사거리와 제2순환도로 각화 진입로 등 주변 도로까지 번져 일대 도로 전역이 혼잡을 빚었으며,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다.

운전자 박모(32·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는 “동광주 나들목 진입로가 폐쇄된 줄 몰랐다. 사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소 수백m 전방에 홍보물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광주시는 이 같은 교통대란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사전 홍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도로 폐쇄를 앞두고 이 일대 도로 표지판을 정비하고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홍보가 늦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도 각화 사거리 A주유소 앞길 등에 교통경찰관 1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했으나 지점별 배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밀려드는 차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의지로 빠져나갈 때 주로 동광주 나들목만을 이용하고 있어 초기에는 일부 혼잡이 있지만 곧 안정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플래카드나 유인물,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폐쇄 사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유-페이먼트’ 사업 수뢰혐의

광주시장 전 비서관 7년 구형

광주지검 광관부(부장검사 이종환)는 12일 광주시의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광주시장 전 비서관 염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염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G업체 실제 운영자 하모(46)씨 등 업체 관계자

4명과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광주 모 대학 교수 최모(4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염씨는 지난해 2월 ‘유-페이먼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대가로 하씨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수 최씨는 하씨로부터 1억원이 든 가방 2개를 건네받은 뒤 뇌물제공 장소에서 각각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조합원들에 ‘100만원 돈봉투’

영광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광주지법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수협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12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영광군 수협조합장 김모(4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협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온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도 선거에

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분명한 만큼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수협장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월 14일 자신에 대한 협담을 하고 다니는 A씨에게 “협담을 하지 말아 달라”며 50만원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조합원 B씨에게 “당산제 경비로 쓰라”며 5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2명에게 모두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축산업자 신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8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소매치기 의심 70대 노인

여관 객실에서 목매 숨져

11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T여관 1층 객실에서 최모(75)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여관주인(여·76)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여관 주인은 “전날 밤 투숙했던 손님 방에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가봤더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최근 해남에서 발생한 소매치기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유족의 진술과 사건 현장에 외부침입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업자 돈 뜯은 사이버기자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12일 “골재채취장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광주지역 한 신문사 기자 이모(4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 18일 나주시 송월동 한 사무실에서 “공무원에게 부탁해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 골재채취업자 박모(50)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강생 집 골라 턴 피아노 가정교사

수강생들의 집에서 삼중적으로 금품을 훔친 ‘뽕살’ 피아노 가정교사가 경찰서행.

○수강생들의 집에서 삼중적으로 금품을 훔친 ‘뽕살’ 피아노 가정교사가 경찰서행.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피아노 개인지도를 하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김모(여·37)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께 화순군 화순읍 흥모(여·40)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 있던 목걸이(25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수강생들의 집 6곳에서 8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교습을 할 때를 대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번호를 알아낸 뒤 연쇄 절도범으로 돌변.

**사회의 화해로 큰 눈물안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2010년 1월 13일 수요일

광주일보

www.kwangjuilbo.com

**광주지법 1심
영광수협조합장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원**

수협조합장 김모(4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협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온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도 선거에